

하반기 美 관세폭탄 본격화… 신차출시 등 전동화 전략 시동

현대자동차그룹, OBBBA 대응

이달 중 글로벌 권역별 본부장 회의
2분기부터 수익 부담 가중될 듯

“미국 통상환경 변화 분석 하면서
수익 대응 전략방향 내놓을 것”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를 앞두고 전동화 전략 점검에 돌입한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상반기 전동화 흐름에 선제 대응하며 글로벌 판매량 방어에 성공했지만 하반기부터 미국발 관세 부담이 본격화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법률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적용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7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은 이달 중 정기 글로벌 권역별 본부장 회의를 소집해 미국 관세 대응 및 신차 출시 계획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공장에

이어 올해 초 미국 현지에 31조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공을 들였지만 관세 등의 악재로 경영 썬범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은 현대차그룹이 감내해야한다.

우선 판매량은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포함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89만3152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제네시스 포함)는 10.5% 늘어난 47만6641대, 기아는 7.8% 증가한 41만6511대로 나란히 상반기 최다 판매 기록을 작성했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2분기부터 수익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46조 12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아도 매출액 전망치는 전년 대비 5.2% 늘어난 29조 25억원으로 나타났다. 합산 매출액은 75조 12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 늘어난 전망이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할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각각 3조 6320억원, 3조 1449억원이다. 전년 대비 15.1%, 13.7% 하락한 수준이다. 합산 영업이익 역시 14.5% 줄어든 6조 7769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달 경영실적 관련 기업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며 “미국 통

상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 상황을 분석해 수익적인 부분에서의 대응을 위한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미 ‘패키지 딜’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현대차·기아 뿐만 아니라 한국GM도 실적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일정부분 부담해야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되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권오갑, 필리핀 등 동남아 사업장 현장경영

HD현대 회장, 6일간 3개국 방문
대응전략 논의… 임직원들과 소통

권오갑 HD현대 회장(사진)이 동남아 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글로벌 현장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HD현대는 권 회장이 지난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사업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정은 지난주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 현장을 직접 찾는 행보다. 권 회장은 사장단 회의 당시 “직접 현장에 자주 나가 미흡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며 현장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동남아 3개국 방문은 조선, 정유 등 HD현대의 핵심 사업영역이 집중



된 전략적 거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오갑 회장은 각 지역에서 사업별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들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첫 방문지는 필리핀 수빅조선소다. 권오갑 회장은 직접 야드를 둘러보며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수빅조선소 야드 일부를 임차해 해상풍력 및 선박 건조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어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영업 전략과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는다. 싱가포르는 정유·물류·해운 산업의 핵심 허브로 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

마린솔루션 싱가포르 법인 등이 위치해 있다.

권오갑 회장은 마지막으로 베트남 중부 칸호아성에 위치한 HD현대베트남 조선을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HD현대미포의 베트남 자회사인 HD현대베트남조선(HVS)은 1996년 수리·개조 법인에서 출발해 2000년대 후반 신조 사업에 뛰어들어 후 현재까지 200척 넘는 선박을 수주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동남아 3개국 방문은 글로벌 핵심 거점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권오갑 회장은 평소에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주요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경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전자는 글로벌 완구 브랜드 레고코리아와 협업해 ‘더 프리미어 5’ 체험 공간을 전국 6개 레고스토어에 순차적으로 연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프로젝터 활용 레고 조립해요”

‘더 프리미어 5’ 체험존 운영

삼성전자가 초단조점 프로젝트 ‘더 프리미어 5’를 활용해 레고 브릭을 조립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한다. 손가락 터치만으로 설명서를 넘기고 확대해가며 레고를 조립하는 색다른 체험이 가능해졌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완구 브랜드 레고코리아와 협업해 더 프리미어 5 체험 공간을 전국 6개 레고스토어에 순차적으로 연다고 7일 밝혔다. 체험존은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이용 방법은 체험존에서 스마트폰에

‘레고 빌더’ 앱을 실행한 뒤, 해당 화면을 더 프리미어 5를 통해 테이블 위에 투사하면 된다. 사용자는 터치 기능이 적용된 화면을 직접 넘기며 레고 설명서를 따라 조립할 수 있다.

더 프리미어 5는 지난 4월 출시된 가정용프리미엄 프로젝트다. 벽으로부터 약 43cm 거리만 확보하면 최대 100형(인치)의 화면까지 투사할 수 있으며, 트리플 레이저 기술을 탑재해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스탠드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적외선 기반의 터치 기능도 쓸 수 있어 게임, 그림 그리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重, 8694억 해양생산설비 작업 수주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협약 체결

삼성중공업이 아프리카 선주로부터 해상 액화천연가스(LNG)생산설비 예비 작업 계약을 따내 해양플랜트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때 ‘골칫덩이’로 여겨졌던 해양플랜트 사업이 고부가가치 수주 영역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삼성중공업은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해양생산설비 본 계약 체결 전 예비 작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8694억원으로 2024년 매출액의 8.8% 규모다. 해양플랜트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설비(FLNG)와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이 대표적이다. 해양플랜트는 발주 간격이 길고 공정 난도가 높아 수주 자체가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지표로 꼽힌다.

회사 측은 이번 협약으로 해양생산설

비 분야의 독보적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해양 분야의 안정적 일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선주와 합의해 지난 2월 18일부터 실제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0년대 초 해양플랜트 중심 전략을 추진하며 사업 재편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해양사업 비중을 4년만에 32%에서 88%까지 끌어올렸으나 복잡한 설계·시공 역량 부족과 국제유가 급락이 겹치며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1조5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해양플랜트 가격이 상승하며 해양 제품이 상선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해양플랜트 신규 발주의 절반 이상인 9건 중 5건을 수주하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



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 전경.

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국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해양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발주가 계획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년 1~2기를 수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올들어 LNG운반선 1척, 셔틀탱커 9척, 에탄운반선 2척, 유조선 4척, 컨테이너운반선 2척 등 운반선 18척과 금번 해양생산설비 계약을 포함 33억 달러를 수주해 수주 목표 98억 달러의 34%를 달성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글로비스, 드론 활용 재고조사 효율화

미국 조지아주 통합물류센터에
상반기 ‘자율비행 드론’ 2대 투입

현대글로비스가 카메라 비전 기술 기반의 ‘자율비행 드론’을 물류센터 재고 관리에 투입해 업무 효율화를 이뤄냈다고 7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자율비행 드론 2대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안의 통합물류센터(CC)에 투입해 자동차 반조립부품(KD) 재고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 자율비행 드론은 자동차 부품 물

류센터 재고 관리를 위한 드론으로 현대글로비스 업무 효율화에 큰 진전을 보여준다. 현대글로비스는 올 상반기에 자율비행 드론 2대를 투입해 자동차 반조립부품(KD) 재고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드론 투입 이후 재고 조사 시간은 기존 육안을 통한 조사 때보다 90% 이상 줄었다. 여기에 드론을 활용하면 지상 3.5m 이상에 위치해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물품 재고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드론 배터리의 충전과 배터리 교체는 이착륙 시설인 베이스스테이션에서 자동으로 이뤄진다.

/양성운 기자